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人身賣買制度를 廢止하라 — 人道上、風敎上으로 絶對不可

一

慶北 義城出生 李某란 少女가 病父의 藥價를 求하고저 三個年契約으로 平壤 某料理店에 팔려갓다가 洞里有志들의 誠熱으로 모은 代金으로 處女를 그대로 救出해 왓다는 人情美談은 듯는 사람으로하야금 斷腸의 感懷를 갓게한다。世上에 이가튼 慘情만이 잇다면 如何한 惡制度 如何한 法律이 存在한들、사람을 壓迫하고、사람을 墮落케할일이 어데 잇스랴。그러나 이런 境遇는 千에 하나 잇슬일이오、萬에 하나 잇슬 일이지、社會全般으로 보면 그가튼 人情은 차자보기 힘든다。抱主가 前金 五百圓外에 食費、手數料等百數十圓을 請하야 끗까지 李少女에 對한 賣主觀念을 버리지 안흔것을 보면 얼마나 世上이 醜雜한것을 알수잇슬것이다。

二

普通人의 생각으로 보면 契約金 五百圓을 가지고와서 그 少女를 보내달라、할진대 快諾히 내노핫슬것이다。그러나 娼樓의 抱主는 사람을 賣買物로 알기 때문에 그간에 먹인 食費 手數料를 一分의 減殺업시 追求하는것이다。이미 사람에 對한 觀念이 이런지라 三年을 契約햇스나 그간의 衣服代、化粧料、藥價、食費等 모든 費用을 前借한 娼妓는 그 元金及 利子討價에 餘裕가 업시 終身娼樓의 籠中鳥가 되고만다。本意아닌 賣笑、돈을 갑기위한 賣笑、이것이 娼樓에잇서서의 醜惡、殘忍의 眞面相이다。이것이 文化를 자랑하는 現代國家에 잇서야할 일인가。

三

人身賣買가 如何히 낫브다는 것은 十九世紀의 各國이 奴隸解放을 斷行한것으로 보아 알수잇다。그리하야 國際聯盟에서도 이미 人身賣買에 對한 廢止運動이 이러나 西歐는 어떤 程度까지 實行하고잇다。그런데 日本內地에서나 朝鮮에서는 何等 이러한 人身賣買에 對한 制裁가 업서 이런것이 公公然히 行하고 잇는것은 遺憾이다。公娼이 私娼으로 變한다고 人身賣買가 廢止되는것이 아니다。이것은 오즉 形式을 박군 人身賣買에 不過한다。況 朝鮮가티 公娼制度를 두어 돈을가지고 買淫賣春을 自由로 할수 잇슴에랴。

四

朝鮮은 이미 奴隸制度가 撤廢되지 오랫고、人權을 主張할만큼 文化的 水準이 노파젓다。이 封建時代의 人身賣買制度가 그대로 現在에 施行되고 잇다는것은、朝鮮의 一大羞恥다。더욱 生活苦가 年復年 深刻해감에 딸하 이러한 人身賣買의 傾向이 만허저 감에랴。當然히 가질 家庭을 가지지 못하게되고 本意아닌 賣春을 强要한다는것은 人道上으로도 不可할뿐아니라 風敎上으로도 不可한 일이다。當局은 마땅히 이 不合理한 人身賣買制度를 하루밧비 廢止할 것이다。

阪谷、中西兩氏 滿鐵理事被任

【東京電話同盟】滿鐵의 河本大淵兩理事의 任期滿了에 作하는 後任은 五日左와如히 發令되엿다

從四位 阪谷希一
勳四等 中西敏憲
命南滿洲鐵道株式會社理事(各通)

川越蔣會談압두고 日本側重大協議

南京에 到着한 桑島東亞局長 大使께 重要訓令傳達

【南京六日發同盟】今朝 飛行機로 上海에서 着京한 桑島東亞局長은 六日午前七時半에 着京하자 爲先 宿舍에서 休息한後 卽時 大使館邸에 川越大使를訪問하고 日中交涉에 關한 外務省의 重要訓令을 傳達하고 現地情勢를 聽取한다음 川越蔣介石會談에 臨할 日本側의 對中方針에 對하야 重要協議를行하고 다시 繼續하야 須磨總領事 村松書記官 雨宮 中原 兩陸海武官等의 參集을求하야 現地 首腦部會議를 開催하고 今後交涉展開에 處할 具體策을協議하엿다 그리고 桑島東亞局長은 兩三日 滯京할터이다

蘇官憲漢河서 食糧輸送隊拿捕

【東京電話同盟】北滿國境 黑龍江沿岸漢河(興安東省)北滿金鑛局에서는 黑龍江沿岸에잇는 노로하다金鑛에 對하야 去月末上原松井兩日本人及 滿人三名으로構成된 食糧品輸送隊를 派遣하엿든바 모코로프카下流地點에서 蘇聯官憲에게 拿捕되엿다 同金鑛에는 約三百名의 坑夫가잇서서 食糧이 到達치안흐면 饑餓에빠질수박게업는 狀態에잇슴으로 在黑河本多副領事 在블라고베스첸스크 下村領事代理 在哈爾濱佐藤總領事等은 各各蘇聯官憲과 交涉中이라는바 六日外務省에 報告하여왓다 그러나 右交涉에서 何等解決을 짓지못하엿슴으로 西村蘇聯駐箚代理大使는 五日카즈롬스키-極東部長과 會見하고 三百名의 人命을 救助하는 意味에서 輸送隊의 釋放을 交涉하엿든바 蘇聯當局은 輸送隊의 行動에 不審한點이잇슴으로 拿捕한것이라 하엿든바 不應하야 拿捕한것이다 그러나 釋放에 盡力하겟다는말을 言明하엿는데 卽時釋放할 模樣이업고 一方노로하다金鑛에서는 漸次食糧이 缺乏되여잇슴으로 外務當局은 다시至急釋放을 交涉시킬 方針이라는데 蘇聯側은 馬公에抑留된 蘇聯汽船釋放에 利用코자하는 魂胆에서 나온것으로 憂慮되는데 外務當局은 자못不快視하고잇다

六日觀兵式後 卽時地方行幸

【札幌電話同盟】三日間에亘한大演習御統裁를終了하압신 天皇陛下께압서는 觀兵式後 御休養하압실御餘暇도 업스압시게 地方行幸을하압시엿다

陛下께압서는 北大構內의 賜饌場으로부터 一旦大本營에還御 御晝餐을마치압신後 御通常禮裝에 鈴木侍從長御陪乘 略式自動車로 午後二時行在所御出門 沿道赤子의奉迎送裡에 一路種畜場에行幸 二十三分同所着御 御座所로定한 場長室에서 相原場長으로부터 場務에關한奏上을御聽取하압시고 다시畜産圖解標本을 天覽하압신다음 玉步를場內로옴기시와 場長御先導로 各種作業을 天覽하압신다음 御座所에着御하압시와 四圍에丘岳으로圍繞된雄大한 牧場에서 或은臥座하고 或은馳驅하고 或은樹木그늘을돌고 自由로 享樂하는 牛馬를 御興味깁흐시압게、天覽하압신後 午後三時十八分 天機御麗히 種畜場御發 同四十二分行在所에 還御하압시엿다

大演習의終了로 政局漸次緊張

處理如何론內閣危機도招來 今後推移는去益注目

【東京電話同盟】陸軍特別大演習도 五日로써 終了되고 六日觀兵式及 賜饌도 遲滯업시 終了되엿슴으로 廣田首相은 七日朝 札幌發歸東途上에 오르고 島田農相은 九日、前田鐵相은 十一日、寺內陸相은 十二日、平生文相 林法相은 十三日 各其歸東할豫定이다 馬場藏相、小川商相도 六日朝에 모다 歸東하엿슴으로 大演習終了와함께 政局은 異常히 緊張될터인바 對中問題를 爲始하야 電力國營、行政機構改革、陸海軍編成問題等 政局의 動向에 重大關係를가진 幾多의 諸議題가 未解決의 懸案으로남어잇슴으로 이들諸問題를 政府가 如何히 處理할는지 注目의 焦點으로되여잇다 三十二億圓餘에 達하는 厖大한 要求豫算額을 如何한 程度로削減하고 十六億圓以上의 國防費와 一般産業費와의 調整을 如何히 하고 或은 電力民有國營을 基礎로하는 遞信省原案을 如何히 具體化하고 紛糾中에잇는 行政機構改革問題를 如何히善處하고 增稅問題 國防費의膨脹을如何히緩和할는지의重大問題가 政局의前途에橫在하여잇고 各閣僚가 東京에모히는 今月中旬以後 豫算編成期의 明迫에따라 各閣僚의 動向도 頻繁하게되여 政府가其處理에 一步를그릇치면 內閣의 運命에 關係되는 重大危機를招來할는지도 모르는情勢임으로 今後政局의 推移如何는 一般으로부터 注目되여잇다

佛左右兩翼 對立遂尖銳化

內閣危機도 招致? 팟쇼團反左翼鬪爭決行揚言 政府內部攪亂에 對抗

【巴里五日發同盟】四日午後파르크·드·브란스에서 佛國全國共産黨示威大會가 擧行되엿슬때 팟쇼運動總師라大佐가 引率한火의十字團의 後身인 佛國社會黨員一萬五千人이 妨害를 試할 자움에 共産黨員及 警察官과사이에 大衝突을 惹起하야 多數의 檢束者를내엇는데 同黨首腦部는 今後黨員을 動員시켜 左翼的傾向에對하야 反對데모를行하야 果敢한鬪爭을 하겟다고揚言함으로 左右兩翼의 對立은더욱 尖銳化할것으로 보인다 팟쇼派는警察部內의 思想的對立을 激化시켜 人民戰線內閣打倒의 新戰術을 企圖하고 잇는데政府는 警察部首腦部의 轉任을 行하야 右翼의 部內攪亂策에 對抗하고 잇다 그럼으로 政界에서는 左右抗爭의激化가 불룸內閣 崩壞에까지 展開될것으로 推測하고잇다

廣東中國諸新聞 共同社說을發表

全國民에對하야國府信賴强調 日本에平等互助要望

【廣東六日發同盟】民國日報外當地中國新聞 二十社는 上海 南京各社共同宣言에呼應하야 六日朝刊에 大要左와如한 共同社說을 發表하엿다

一、極度로 緊張된 現下日中局面은 實로 中國의存亡興廢를 決하는 最後의秋이다 中國國民은 最大의決心으로써 吾人의 生命을 犧牲하고 國家民族의 生存競爭을爲하야 奮鬪하기를 바란다

二、全國民은 一致하야 蔣介石氏의所謂「平和는 아직絶望의時期에 達하지안햇슴으로平和를 抛棄치말고 犧牲은 아즉最後의 爭頭에 이르지안햇슴으로國民은 犧牲을 돌보지말고 國策을 擁護하라」는 狹隘한 報復과 激昂 憤慨는 事實利益이업고 愛國의常道和平의正道가 아니다 國民은政府를 信賴하고 最後의命令을 기다려 最後의 犧牲을報行할 秋가오면 死로써 光榮을삼어라

最後에 日本朝野에 希望하는것은 爲先 眞正한 問題와 解決方式은 日中關係改善의 起點如何에 잇다는것을기피 認識하고 外交手段에依하야 解決을圖할것이다 日中關係의 眞正한 會談起點은 平等互存의 基礎를 確立할것으로 單純히 抽象的原則을가지고互相論爭或은 脅迫하야 報復手段을 取함이 아니다 現下의 緊迫된 日中交涉을 展開식힐것은 오직 日本이 誠意로써 東亞를 纏轉하는가에 잇다 吾人은 日本朝野의 反省을 希望한다

中國要人들과는 相面會談을避하고 桑島東亞局長歸國 中國情勢만聽門、報告

【南京六日發同盟】川越大使에對한 日本政府의 重要訓令傳達을 了한 桑島東亞局長은 國民政府要人과會見하지안코 七日 南京發 最近의 船便을求하야 東京으로歸還 有田外相에 南京政府의情勢를 報告하기로되엿다

遞信繰入少額 大藏省大不滿

【東京電話同盟】遞信省에서는 郵便料金引上에 依한 特別會計益金增加는 大體 一千五百萬圓을增加할수잇다는 方針을 決定하야 그中約五百萬圓을 一般會計에繰入시킬方針인데 大藏當局에서는 彪大豫算에 要할財源捻出에 苦慮하고잇는 此際 遞信特別會計로부터繰入增은 相當히 期待하고잇섯스므로 細小한繰入에 不滿의 意向을 가지고잇다 大藏當局은 이미發表한 遞信事業에依하야 明年度豫算을 二億圓에 推測하고잇는데 豫算總額은 적게推測하드라도三十億圓을 突破할傾向이다 이財源捻出을 爲하야 自然增收外에 增稅引上 其他各特別會計의 繰入增 大約二億圓을 期待하야 結局 新規財源을 四億圓으로 推測하고 잇스므로 大藏省으로서는 郵便料金 引上의 全額은 此를 一般會計에繰入시켜 遞信特別會計繰入額 一千三百萬圓을 一億圓內外에 增加할 意向이라한다 勿論 遞信特別會計의 繰入增額은 鐵道益金 其他外地特別會計繰入增 此를 期待하야 考慮하나 大藏當局으로서는 細小한繰入에 依하야 到底 滿足치 못하고 今後 大藏 遞信兩當局의 事務折衝과 倂行하야 藏相이 直接 頼母木遞相에게 繰入增額에 對하야 政治的折衝을 하기로할것이다

首相、五相招致코 重要意見을交換

【札幌電話同盟】大體로 一致를 본 廣田首相은 六日 觀兵式及 賜饌終了後、月寒農場을 視察、午後六時부터 宿舍小立亭에 寺內陸相、前田鐵相、潮內相、平生文相、林法相의 五閣僚를 招致하야 爲先 首相으로부터 日中問題의 經過及、帝國政府의 對中根本方針에 關하야 詳細히 說明하야 諒解를 求하고 다시 明年度豫算과 電力統制 稅制整理及 行政機構改革等大演習後 卽時 表面化할 各種重要問題에對하야 意見交換을 行한結果 다음과가튼方針으로 進行하기로大體 意見이 一致되엿다

一、明年度豫算은 歸東後 卽時 豫算閣議를 열고 十一月中에 決定할것
一、電力問題에 對하야는 速히 三相會議를 續開하야 늣더라도 十月中에 政府의 根本方針을 正式決定할것
一、稅制整理問題에對하야는 今後各方面에 相當히 强硬한反對論이 생길 空氣가 濃厚한 故로 政界、財界等 各方面에 對하야 極力諒解를 求할것
一、行政機構改革은 早速히 研究에 着手하는데 當面問題로서는 最大 難關인 豫算問題에 全力을 다하고 이것이 一段落된後 正式으로 閣議에問題化할것

滿洲炭業會社 石炭增産五年計畫

【新京六日發同盟】日本의 燃料國策、石炭液化問題等에 對應하야 滿洲에서도 石炭增産計畫이 具體化하야 滿洲炭業會社에서는今回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現在資本金一千六百萬圓을 一躍八千萬圓에 增資하야 五個年後에는 全滿(撫順을除함)의 出炭量一千萬噸을 超過시킬 計畫을 樹立하엿다 右에 依하면 康德三年度에는 二百二十萬噸 同四年度 三百四十萬噸 同五年度四百六十萬噸 同六年度六百九十萬噸 同七年度一千萬噸을 産出할 方針인데 右計畫은 準新炭坑에 主力을 두고 五個年後에는 準新炭坑 四百萬噸 北票炭坑 百五十萬噸 密山炭坑五十萬噸 復州炭坑二十萬噸 八道濠炭坑十萬噸 西安炭坑 其他 三百七十萬噸 合計一千萬噸乃至 一千三十萬噸에 達할것이며 撫順炭坑 其他 滿鐵系炭坑을 合하면全滿出炭量은 二千萬噸에 達하야 內八百萬噸은 輸出할수잇는模樣이다

匈首相再起不可能

【부다페스트五日發同盟】匈牙利首相 괴뫼스將軍은 身病으로目下 뮨헨市에서 治療하고잇는데最近 肺炎을 倂發하야 再起不可能하리라고한다 首相의 休暇는十二日로써 滿了되는데 괴뫼스首相은 同日 辭職하고 後任으로 首相代理다랑이農相이 昇格되리라고 觀測된다

外交武力兩方으로 對日抗爭을準備

歐米列國의注意喚起코 聯盟提訴도考究

【上海五日發同盟】桑島東亞局長은 五日午後三時着 長崎丸으로 上海에到着하얏는데 中國側은 桑島局長의 來中으로써 日本의 强硬派의意向을 傳達하는것이아닌가하야 日中交涉의 進展을期待하고잇는 模樣이다 그래서 南京政府는 日中交涉再開의 準備와 함께 對日强硬論에 牽制되여 情勢를 살피고 잇는데 國際聯盟에 提訴도하라고 其他列國外交工作도 進行시키고자 有田外相、許大使會見에 關한 報告와 日中交涉에 關한 情報를 英米方面의 各駐外大使에게 通告하며 또列國의 今次日中交涉에 對한 態度를 至急打電하라는 訓令을 發하엿다 聯盟總會에 出席하랴고 주네브에 駐在한 施肇基大使에對하야는 交涉進行에따라 特히 國際聯盟과 折衝한 聯絡을 取할것을 命하는 한편 南京政府는 交涉展開에 作하야 列國의 關心을 이에 集中시키는 政策을 取하고잇다고傳한다 一方 中央軍은北中方面에 移動시키고 西南方面의 中央軍을 上海、蘇州의 原駐地에 歸還시키여 平漢線으로北上한中央軍은 이미 約十個師團을 넘게 隴海線에 集結하고잇다 此는 前番北中協定으로 河北省에는 中央軍出動이 協定違反이됨으로 鄭州及徐州方面에 그主力을 集中하야 一部는 山東南部로부터 北上、待機의 姿勢를 取하고잇다고傳한다

十個師는이미北上?

리라貨切下 英農民에重大影響

【倫敦五日發同盟】리라貨切下는 英國政界에 相當한衝動을 與하엿다 卽過般英米佛三國間에 協定된 通貨安定工作의 協力에압서 나치스와팟쇼과 반드시 思想的으로 同一하지안타는 證據를 明瞭히 하고 今回의 切下는伊太利가 經濟的利害아페 獨裁國의體面을 버린點이잇는것은 興味가깁고 經濟的으로는 目下 交涉中인 英伊通商協定에 影響을 及할터로 伊太利의蒲萄酒、人絹等이모다더만히 輸入될境遇에는 英國農民은 반드시 重大影響을 蒙하기를 要求하리라고 觀測되고잇다

町田總裁演說

【東京電話同盟】來八日大阪市에開催한民政黨地方大會席上에서町田總裁의 演說은 今年度의 第一聲이만큼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되고잇는데 그內容은 大體庶政一新 黨費公募의 大方針에 基하야 內治外交에亘한 黨의主義主張을 明白히하고 特히 政黨更生問題及 當面의稅制整理、行政機構改革及 電力國營問題에 對하여도相當히 深刻한 所信을披瀝 庶政一新의革新政策斷行의 必要를力說할方針이다

東北興電振興 創立總會開催

【東京電話同盟】東北興業 同電力振興兩會社는 政府側의 設立準備手續이 完了하얏슴으로 七日午前九時로부터 工業俱樂部에서 創立總會를열고 總裁外는吉野商工次官 其他就任을 決定한後 卽日仙台 東京本支店에서正式業務를 開始하기로 되엿다 또政府는 設立手續終了를 기달리여 七日附如左히 總裁以下首腦部의任命發令할터이다

東北興業株式會社總裁 商工次官 吉野信次
東北興業株式會社總裁被仰付 吉野信次
東北電力振興株式會社社長被仰付 山形縣知事 金森太郎
東北興業株式會社副總裁被仰付 簡易保險局長 猪熊貞次
東北電力振興株式會社副社長被仰付

英모닝포스트紙 日英協調를强調

【倫敦五日發同盟】日中兩國間의 外交交涉에對하야 英國朝野는 多大한 關心을갓고잇는데 모닝포스트는 五日紙上에 日英兩國은 互相協調할 必要를 說明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日中兩國間의 關係가 明白히 되기까지는 國際聯盟으로 其責任의 一半을 負하지안흐면 안된다 滿洲事變時 聯盟이 干涉치안햇드라면 日中兩國間의 軋轢은 尖銳化하지안햇슬것이다 聯盟에는 現在極東의 時局을 救濟할만한 實力이업다 英國政府는 遠間에成하야 極東平和를 爲하야 努力할것이다 一方 日本政府도 極東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기爲하야 新提議를 提出하기를考慮한다고하나 以上의 措置는 結局 日本의 利益을 增進할것이다 英國政府는日本과 協力하여야 中國의 幸福을 助長하고 平和와 繁榮을極東에 招來할수잇슬것이다

重光駐蘇大使 板垣參謀長과會談

【新京六日發同盟】歸任途中 新京에 到着한 重光駐蘇大使는 六日午前九時부터 關東軍司令部에서 板垣參謀長과 會見 現地關係의 諸問題를 中心으로 會談하고 다시 午前十一時부터 武藤第二課長 田中、山岡、大橋參謀等과 會見 滿洲國對外關係에 對한 關東軍의 意向을 聽取하고 同日午後三時四十分發列車로 東京向 歸任途에 就하엿다

英空軍大擴張 爆擊機數를倍加計

【倫敦六日發同盟】英政府는 國防擴充計畫에 基하야 著著航空擴充에 邁進하고잇는데 特히爆擊空軍部隊의 充實을 期하기爲하야 五日民間航空機製造會社에 長距離超爆擊機及 重爆擊機의大量注文을 發하엿다 英國政府는 英國航空擴充에 對하여는 比較的 重要視하지안코 今回의 擴充計畫에 잇서서도 爆擊機의 目數는 驅逐機의 約二倍에 及할터이라한다

日英協調를强調

단치히自由市問題

【주네브五日發同盟】단치히自由市問題에關한 英國、佛國、瑞典 代表로成立된 三人委員會報告書는 五日夜聯盟理事會에 上程、審議한結果 滿場一致로 採擇되엿다 報告書는 라이푸큰정은 四十四頁의 浩瀚한것인데 聯盟高級委員레스타氏의 自由市參議院에對한 不平、其中參議院이 發布한 數種의 法令은 自由市의 憲法違反이라는것과 參議院이 高級委員의 要求를 無視하고 必要한報告를 高級委員에 提出치 안흔 事實等이 明記되여잇다

自由貿易主義를 英國代表大贊成

【주네브五日發同盟】聯盟經濟委員會는 五日午前 開會劈頭에 英國代表몰슨大藏次官은 著者에成立된 英米佛三國通貨協定을 擁護하야曰 吾人은 三國政府의 通貨에關한 新調整協定의 成立에 依하야 世界貿易이 一層 發展하게되든理由를 說明하고 佛國政府가 平價切下를 行하야 瑞西 米國의 例에 模倣하야 平價切下에도 不拘하고 關稅를 引上치안홈은 其證左이다 吾人은 各國政府가 모다 經濟的自由主義로될것을 信하야 疑心치안는다 今日까지 世界貿易에 對하야 協力하여왓다 吾人이 各國의 經濟的自由主義를取하고잇다는것을 强調하엿다

夕刊後市況 (大日)

◆大阪 週期 氣配
大新 七二〇〇 (不變)
新 一七四〇〇 (不變)
日產 八二八〇 (一〇低)
東新 一三七三〇 (二〇低)
◆滿洲 生系 後引◆
當限七四〇〇〇 先限七三五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九七〇 先限 五七八〇

多物 羅紗洋服荷捌 大衆向 三ツ揃 オーバ ズボン 一詰衿上下服 朝鮮人向オーバ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十八番地 田中宇商會 電話東二〇二三番 店頭販賣ニ限リ定價表進呈

軍隊ラッパ 九〇式三重巻ラッパ 詳細カタログ呈 營業者에限함 ナカオオルガン、シレネギター、ハーモニカ MNI音樂器製造卸 官公署靑少年에最適的實用品 大阪市東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喇叭所製造 電話五一二三番

各種 作業服 見本商報送呈 コール天長 半ズボン 上下服チャンバー 制服、其他裁縫品一式 製造問屋 大阪市東區本町停留所前 合資會社 西村直商店 電話南六二七二番 振替大阪八〇二九一番

洋服 オーバー 背廣 商報進呈 株式會社 圓山商店 大阪市東區島町一丁目 電話東五三〇四 振替大阪五七四二九

錢入 袋物現金問屋 (商報進呈) 大阪市東區博勞町一ノ二六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電話船場三二〇五 振替大阪六四三七〇五

眼鏡 煙草具專門製造卸 파이프 쥐암이 煙草入 卷煙草入 (價格表送呈) (眼鏡御部商報送呈) 大阪市東區博勞町三丁目四 津田嘉助商店 電話船場四四四〇番 振替大阪一七五三四番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錢、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 大阪南局第二三三番函 庄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九番 振替大阪二三八三三番 (商報送呈) 見本은郵券五十錢(切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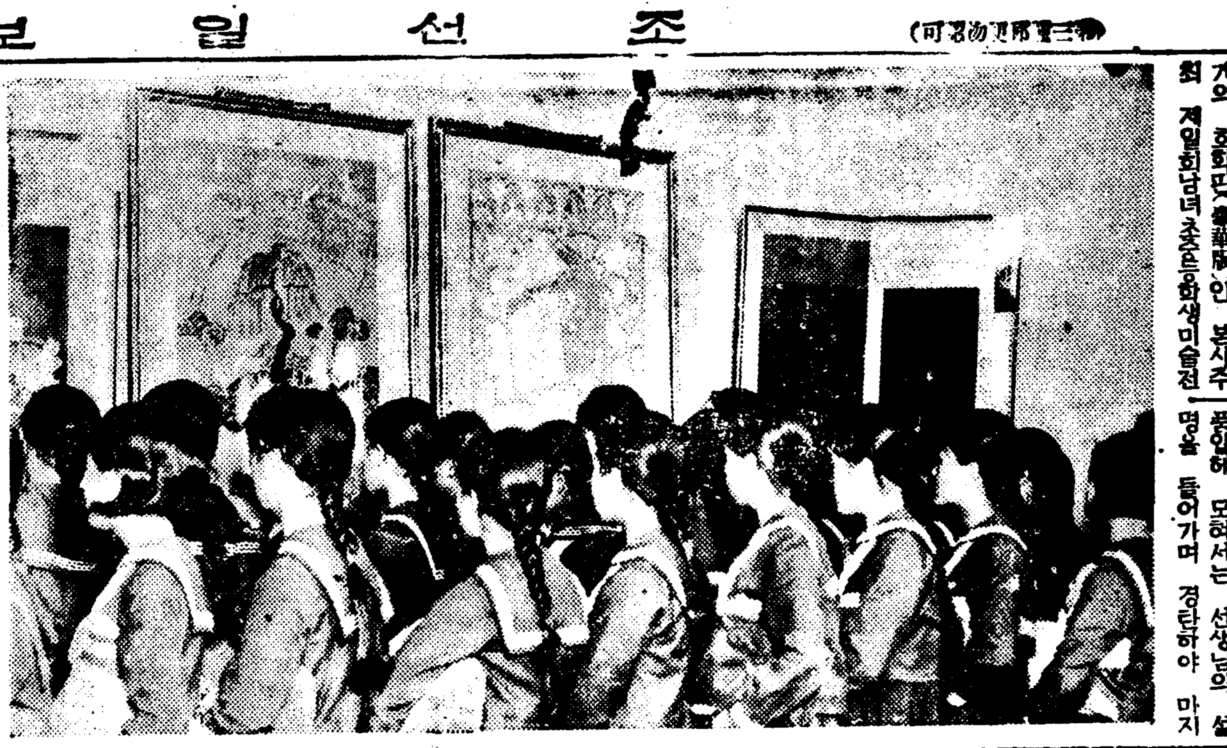
玩具仕入은 一次當店에 百般教育玩具卸問屋 新品在庫品豐富 大阪市東區住吉町五十五 大阪百貨卸問屋勉强會 會員 角木商店 電話東一五八二番 振替大阪五九九六〇 型錄送呈要二錢

冷소면、冷우동冷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에、 今新興から(고초가루) 月美人印製品 製造本舖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天滿

傑品압에 恍惚佇立 野望에 童心鼓舞

同侔의 手法構想에 感歎·다음機會를 自期

沈默속에 興奮한 團體入場者



오는날의 「미술조선」을 뽑낼 꽃과 봉오리(蓓蕾) 바늘끝에지고 어린 정렬을 다하여가며 현당의 길에 정진하고잇는 어린 화백들의 작품을 한곳에 모아 현란(絢爛)과 청신(淸新)을 자랑하는 사계의 호화판(豪華版)인 본사주최 제일회남녀초중등학생미술전람회 둘째날인 륙일에는 첫날에 보지못한 성황(盛況)을 일우엇스니 개인입장이 만흔것은 물론이며 그보다도 단체의 입장수가 훨신 늘어가는것이다 눈이 부시는듯한 특선, 우선작품앞에 모혀서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가며 경탄하야 마지안는 생도들의 머리에는 나도 저러케 한번 그려보겟다는 아름다운 야망(野望) 과경이가 떠오르며 자긔학교동무가 출품한 작품에서는 발을멈춰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서잇는 생도도잇섯다 이리하야 장내는 침묵가운데 이들에게 미술의 감상력(鑑賞力)을 붓도다주며 진보향상의 박차(拍車)가되는것이다

입장 참관한 단체는 다음과갓다

三和公普五九名 培材高普五〇名 淑明院普校九七名 同上女子實業學校五六名 貞信女學校二九名 佛敎講院二一名 黃海道安岳安信普通學校六五名

(寫眞은 몰려온 女學生들)

水準노 놉데 驚歎
刺繡陳列不整은 遺憾
培材 金炳濟氏 談

「이번 귀사주최전람회는 절날에 어떤남자 흥분녀자중등학교가 주최했든 전람회에서일즉이 보지 못했든것이니만치 훌륭한데 놀라기를 마지안엇다 작품들의 수준(水準)이매우 노픈동시에 량으로나 질로나 모다 우수한데는 경탄또경탄햇다

그러나 한가지유감되는것은 자수진렬에잇서서 그진렬방법이 매우정제되지못해서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드럿다 그것만 잘정돈해주엇스면 모다가 만점이될것으로 밋고 한마듸 군말을 부탁한다」

두屍體또發見
鹿島丸의續報

【仁川支局電話】 록도환(鹿島丸) 침몰로인한 조난자의구출작업은 그후게속해서 잠수부(潛水夫)들이 힘쓰고잇든중 엿새날오전열시에이르러 또한개의시체가발견되엿다 그는 선원명부에의하여

本籍 延白郡
現住 仁川府宮町三三六 朴光淳의弟 安龍同(三七)

으로 판명되엿는데 당일오후로 지난번발견된 한명순(韓明順)(二三)의시체와함께 화장에부첫다 그리고 본보지국에서는 특파원 긔자가 중국선을타고 현장에달려가서 발굴주조작업에 협력할 동중이다

그리고 륙일오후한시에 주안염전(朱安鹽田)의 제일수문(水門)에서 남자의사체한개를 또 발견하엿스나 누구인지 알수업서서 인천지국선회사로 데려다가 가족들에게보여서 그시체의주인을 찾기로하엿다 한다

滿洲서도誠金遝至

근년에 드물은 풍수해로 말미암아 생활의근거를 전부일코 닥처오는 겨울의 치위에대한준비조차업시 풍찬로숙을 계속하는 백만리재민을 위하야 약소하나마 보태어달라고 정성에넘치는 금품을 속속본사로 기탁과가티 성금이 답지하야 재원으로하여금 그들의 성의에 눈물지게하고잇다

▲七十二圓五十錢 圖們稅關內 金永植氏外八十人 ▲金四圓七十八錢 衣類七四點 京城新堂町文化村孝明生徒一同 ▲金二十圓 衣類三二一點 間島圖們白鳳街基督敎安息日會 ▲三圓二十錢 滋賀縣長濱農學校 朝鮮人學生一同 ▲七圓 東京日本橋區濱町二丁目八九 尹炳喆 金敦日 ▲七圓 大阪府下長瀨村北蛇草永松館工場 朝鮮人一同 ▲百二十五圓十五錢 橫須賀 朝鮮人友和會一同 ▲四圓一錢 滿洲國三江省依蘭普校生徒職員一同 ▲十五圓十五錢 滿洲國安東稅關 監視科員一同 ▲十六圓五十六錢 金海邑東上洞 裵昌隆 ▲一圓八十二錢 水原天道敎會員一同 ▲十圓 東京巢鴨高商內朝鮮人留學生一同 ▲二圓七十七錢 大阪市東成區森町二條通朝鮮耶蘇敎五旬節敎會

創立中의民友會
對內對外的活動開始
大東民友會와는別個團體

공산주의운동에서 전향한 사람들로서 조직된 백의회(白衣會)를 민우회(民友會)로 고처조직하야 창립총회를 진행하든중에 의견을 달리한 리갑종(李甲鍾), 안준(安浚)등 일파는 분리하여나가서 얼마전에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를 창립하엿고 민우회는 그동안 시내재부정(齋府町)에 사무소를두고 리사장 김경식(金璟植) 리사 리방(李芳) 감사 리항발(李恒發)등 간부들은 내부의 분규를 정리하는 일방으로 회세확장에 힘써왓는데 불원간에 림시대회를열고 대내대외적으로 활동을 개시할터이라한다

그런데 이 민우회와 대동민우회와는 매일자세히 보도하여온다함은 마음날이 지난요사이도 조선각처에서는물론 일본내지및 만주등지로부터 다음

池泰善에게 執行猶豫判決

소화칠년이래 중국상해(上海)와 남경(南京)등지로 왕래하며 대한〇〇당 또는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에가입하야 조선의〇〇과및 공산화를 목적으로 활동하여다는 강원도춘천군 신남면송암리(春川郡新南面松岩里)태생 지태선(池泰善)(三)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공판은 륙일오전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형사부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향천(香川)검사관여미테열엿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징역이년구형에대하야 징역이년에삼년간집행유예 판결을내리엿다

郵便料金을引上
朝鮮서만百萬圓增收
明年四月부터實施키로決定

【東京電話】 체신성에서는 우편료금의 인상을단행하기로방침을 결정하고 명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一、封書와 封緘葉書는 四錢으로 葉書는 二錢으로引上
一、第三種(五厘)第四種(二錢)第五種(一錢)을各其引上하기로되엿다

이상과가티 체신성의 우편료금 인상을따라 조선에서도 명년사월부터 일본내지와 동양으로우편료금을 올리게될것이라한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우편료금을올리면 적어도백만원의 증수를볼터인데 그증수금백만원은체신종사원의 대우개선에 충용할터이라하며 이에관하야 체신국에서 충분한고려를 하고잇다한다

魔淵에서 救出한
挺身·鄕黨의 義人群!
上奉下率重荷로窮極엔賣身
間一髮·光明의天地로

當代沈淸
月順의再生記

【平壤】 루보=아버지의병을 고치라고 인생으로밋바다의생로(生路)인 인육시장에몸을 팔엇든 효녀=경북의성군비안면서부동(慶北義城郡比安面西部洞)리홍배(李弘培)의차녀 월순(月順)(二三)이 그는죽엄(?)의직전위협지대에서 마친내 구원의손이미처 지난사일 새벽아레 자유의몸이 되고말엇다 이제 그를건저내는 리면에싸힌 눈물겨운경로와 그의거러온반생고를보면 다음과갓다

당대의효녀 를구하려고고향인사들이 분기하엿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그후 고향전동민들이 소래를 놉혀 월순이구할것을 결의하고 빈촌이라 현금이 업슴에 전동민련명으로 긴급히 당지 금융조합에서 현금오백원을 대부하야가지고 대표로 리상직(李相稷)씨가 급기야 사일아침래양하여 제일보로 본사평양지국에 차저와 구원책을세웟다 그래서 포주의호의로 영업수수료와 그동안 모든비용을 제하고 몸갑만 오백칠십원을밧고 내여주엇는데 월순은 고향에서 자긔를구하려고온 리상직씨의 손을잡고 반가움과 서러움에 한참동안은 눈물만이두빰을적시며 아무말도업시 서잇드니 삼사분후에야 비로소 소래처 울기를 시작하엿다

아! 이국적 참경에 누가 눈물을 아니흘리랴! 더욱이 가튼신세에 잇는 창긔 수십명이 그를동정하고 모혀섯다가 이광경을 보고 일시에우름터저 진정(鎭町)일대를 혼들어놋다

× ×

또한사람의 구원희망자가 잇다 그는 개성부지정(開城府池町) 사십삼번지의오호 한제찬(韓載燦)씨로서 모든일이 결정된다음 본사평양지국으로 와서 조선일보를 통하여 알고 그런 효녀를 그냥두어둘수가업서 왓노라고하며 일동을 감격케하엿스나 때는임이 결정된후라 자세한것을 알녀주매 아무가구햇서도 자긔의 뜻대로 되엿다고 하며 그러면 고향으로 도라가는려비라도내겟다고하여 더한층감격의 눈물을 자아내엿다

리월순은 지금으로부터 이십이년전 꼿피는봄 전긔 서부동에서 갑부는 못되어도 상당한 재산가인 리홍배의 둘재딸로서 테여나 꼼게꼼게 아버지의 무릅에서 어머니억개로 자라낫다 세상일은 모를것이다 그러다가 월순이가 여덜살되든해에 아우하나를 터나어 딸만삼형제를남기고 어머니는 이세상을떠낫다 운명의신은 더욱 작난이 세엿다 그가보통학교 사학년때 열일곱되든해에 그아버지는 정신에 이상이생기고 그우에 신체의자유까지 일코말엇다 그때형은 출가하여 전책임은 월순이에게 잇섯다 이때문에 기우러저가든 재산은다업서지고 결국에는 월순이가 학교에서 도라오면 동리로 다니며 품파리로 신고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우를 먹엿다 이런생활을 일년남아 계속하는가운대에 미말이 한사람에서 두사람으로 퍼저 월순이의

효성에감격 한동리사람들은 월순의 월사금 학용품제각기맛터 사주게까지 이르렀다고려는가운대에 소학구년 즉재작년봄 수무살에 나는해 학교를 졸업하게되엿는데 졸업당시 근로를별상과 비안면장으로 부터 효녀로 상장까지 바덧다 그리고 금년이월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효녀로서 상장과 상품을 바덧다 그러나 여전히 다처오는 생활고와 아버지의병을 엇지해서든지 고처보겟다는 마음만은 더욱커갓다

그러고 자긔는 아버지를 위하야 일생을 바칠생각으로 동생은 출가를 식혓다 그리고는 지난녀름 생활과 숙망의아버지병을 고처볼생각으로 원대한희망을품고 부산(釜山)조선방직회사(朝紡)여공으로 드러갓스나 끔꾸든것과는 너무도 달럿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숙망을실현할 가능성이 업섯다 그래서 방적회사를뒤로차고 다처로 일자리를구하여 보앗스나 한곳도 그를 바터주는곳이업섯다 세월은흘럿다 아버지에 대한근심만 것잡을수업시커갓다 그는 몇날을두고 생각한결과 자긔의

몸을희생해 서라도아버지의 병을곤처주고십헛다 그래서 그곳 중개소에 뛰어들어 자긔가모든수속을 모맛추고 삼백오십원을 아버지에게 부치고 아무도모르게 평양으로 달려왓든것이다

一生을두고
痛快한일
李相稷氏談

다시리상직씨에게 리월순에대한것과 구원동기 구원한후의감상을을 무럿드니

『참얘(리월순)는 조선일보가구하엿습니다 특히 귀지국원에게 재삼감사를드리는바입니다 우리동리에서는 전혀몰랏다가조선일보에 게재된것을보고 비로소알엇습니다 모다가 부산방적회사에 가잇는줄만알고잇섯지 누가 평양으로 이러케 왓슬줄알엇겟습니까

월순의 효성이야 동리는물론 경북에서 전부다알것입니다 돈돌 누가낸나고요? 누구나 다내고 십헛지오 그러나 아시다십히 금번수재로 갓득이나 빈촌에말할수업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긔는급하고 할수가잇서야지오 그래서 동민전부가 련명으로 금융조합에서 오백원을 내여가지고 달려왓지오 올라오면서도 여간마음이 초조햇든것이아닙니다 영업허가나 아니내엿나하고, 그러나 지금에 이러케 맛사가 뜻대로 성취하고 도라가게된에 일생을 통하여 이러케 통쾌할것은 다시 두번업슬것입니다 내일오(七일) 오후차로출발할 작정입니다 운운』

【寫眞은 遊廓에서 救出된 李月順과 故鄕을 代表한 李相稷氏 그리고 그가 팔리워와잇든 梅月樓】

"저를救해주신 社會에感謝"
◇李月順의談

자유의몸이된 그를차저 묵고잇는 평양부내 수옥리(水玉里) 동양여관(東洋旅館)으로차저가니 그는 아무말도업시 고개를숙이고 고향에서온 리상직씨가 대신하야 모든것을 말하여준다 그런데도 월순에게 몃번 달래여 무럿더니 고개를숙인 그대로다음과가티 말한다

『감상이오? 지금에는 아무생각도 업습니다 머리는 텅비인것갓고 가슴은 답답할뿐입니다 딴길이라니요? 당장에 먹을것은 업고 아버지께서는 작고만 고향바드시는데 어듸 딴길이 잇서야지요 결혼문제는 아직 넘우 이른것갓습니다만 자긔만밋고 또 아버지를 리해하는테면 갈작정입니다 참 이번 조선일보사에서 저를 위하야 얼마나 조력하섯는지 천대(代)만대를 두고 아니 잇겟습니다 운운』

伯林올림픽戰後譚 (2)

微笑로 途中食拒否
優勝은 여게서
歸還點孫君의自若한態度!

올림픽전사를 시른긔차는 안양(安養)역을지나서 그리운경성을 향하야 돌진하고잇섯다 정씨의올림픽보고담은 점점가경으로드러갓다 긔자는

『경성이 가까웟스니 누구나다가티뛰고십흔 손, 남량군이마라손제패를 하기까지의 고심담을 들려주세요』하니 정씨는 멜리는어조로…

▼…마라손 말(言)을드리려하니 말문이맥킬것갓습니다 세세한경과는 지상과 또는『라디오』를통하야 아르섯슬것임으로 목격한 실감만며마듸 이야기하지요

▼…팔월구일 마라손을 행하는날은 손군과 남군의뒤를 자동차로 따라가며 도중에서먹고 시퍼하는것을 내가삼선수에게제공하는책임을 마텃댓습니다『스타ー트라인』에선 오십륙명 용사들을 바라볼때에는 모다가씩씩하야보엿스나 우리선수를만은이전지체소하고기려조차업는것처럼보엿습니다 급기야 출발신호와함께 일제히 출발하자 전회의 우승자 『자바라』가 선두에 나서서 때기만만한 태도로 달리드군요 이때에 나는 좌등(佐藤)코ー치와 권태하(權泰夏)씨와 준비해노흔 자동차를 타고 선수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햇습니다 무서운 『스피ー드』로 달리는『자바라』선수는 귀환점 이십일키로지점을 지날때까지 원긔왕성하게 선두를 달리고 손군은 영국의 『하퍼ー』와 의조케 사백메돌가량 떠러져서 둘재로 오겟지요 그래서 『바나나』와 『로스트』 그리고 냉수하고 세가지를 손군이 원하는대로 준비해두엇다가 귀환점에서 어느것이 먹고시프냐고 무르니 아모것도 일업다고 손찻을하며 얼골에 미소를 띄우는것을 볼때 이때에 나는 벌서 손군의 우승이 틀림업다고 자신햇섯습니다 전반에서 스피ー드를 며내든『자바라』군은 아니나다를가 이십팔키로쫌부터 피로한 빗출 보이며 한백오십메돌가량떠러저 추격하고잇는 손군을 도라다보기를 여러번하드니 그만 긔진하야 삼십일키로에서 긔권하야버리드군요 그러자 손군은 의귀양양 쫄을 향하야 달리고 잇섯습니다 가티 달리든 『하퍼ー』는 점점 떠러지기 시작햇습니다

▼…『하퍼ー』선수이야기가낫스니말이지 전반부터 『자바라』를 따러갈려고 떠치를하는 손군을향하야 서로언어가 잘통치못하니까 손짓을하며 『자바라』는 저러케가다 결국기진해서 넘어갈터이니 지금부터 스피ー드를 내이지말고 나와가티가다가 결승라스트에가서 네가기운이잇스면 이길것이아니냐고 권유하는양은 참으로 스포ー츠맨쉽이아니고는 볼수업는 아름다운 정성이엿습니다 그래서 우승한이튼날 아침에『하ー퍼』군을 손군과함께 차저가서 감사하는듯을 표하려고 갓드니 그는 직업이 표구사(表具師)로 벌서자기일이 밥부다고귀런던으로 가버렷습듸다 나는 두번재 그의 행동에 감복햇습니다

▼…남군은 귀환점까지에 열네째로 달리다가 먹고 시픈것이무어시냐고 무르니『물…물!!』하고 두마디를 하기에 냉수두컵을주니마시고 선두를향하야바진하고잇섯습니다 후반이강한남군의 력주는 놀랄만치 빨럿습니다 삼십칠키로 지점을 지날때에는 벌서 열명을 제치고세째로 달리드니 이착한『하ー퍼』에게 백메돌 남짓한 차로 그만 삼착을하엿지요 그러나 이번 코ー스가 언덕이만허서 압서달리는『하퍼ー』가 얼마만치 압선지를 모르고 그저압을향해서 달리리만게로 『스타디움』가까히와서야 『하퍼ー』의 자태를보고 비장히 유박햇스나 끗끗내 제치지못한것이 원통햇습니다

▼…『자바라』가엇재니하고 떠들든 장내도일약『아나운서ー』가 『손군이 선두에 나아가자 그때부터야 바로소 세계최고긔록을 가진 손군을 여러선수들이 주목하며 뒤고잇다는 소리를드를때에 참으로 통쾌햇습니다

▼…손군이 결승점에드러올때의그순간의기쁨이야 어떠하엿다는것을 내말로는 형언키어려습니다 올림픽대회중에서 가장인기를이끌은 『마라손』날은 십오만의대관중이 운집햇섯는데 손군이 마라손문에 용자를나타내이자 십오만대중은 일제히이러나『하일•히틀러』예로 손군에게 경의를표할때에는 우리들은 오직감격의눈물을 흘리고잇섯슬뿐이엿습니다 (계속)

(寫眞은 하퍼選手)

洗鍊된妙技에 滿場은感歎
昨夜올림픽籠球歡迎戰

籠球朝鮮의 名聲을 지니고 멀리 伯林올림픽大會에 出征하야 奮鬪한 廉殷鉉 李性求 張利鎭 三選手를마저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로 열리는 歡迎籠球戰은 六日午後七時四十五分부터 鐘路靑年會運動室에서 開戰되엿다

이날 出戰選手들의 入場式이 잇서 基靑總務 具滋玉氏의 歡迎辭가잇슨다음 高麗對 靑學의 『오픈•게임』으로부터 競技는 열리어 高麗軍 悠悠히 이겻다 이어 올림픽三選手와 OB軍의 混合軍對 延專殘留軍의 『께임』이 열리니 國際舞臺에 登場하야 洗鍊된 妙技에 滿場을 感歎케하엿스나 結局 다음과가튼 『스코어』로 延專殘留軍이 勝利하엿다

高麗 21 (15 6 … 2 10) 12 靑學
(審判=崔昶夏, 宋基宇)

延專 52 (29 23 … 30 15) 45 混合
(審判=洪河斗、張德剛氏)

【延專】		前	後	反
F	洪文吉	8	10	0
F	鄭相勳	0	2	0
F	李容福	5	4	0
C	金應鎬	2	6	0
G	金程信	4	5	1
G	方元淳	4	2	0
		23	29	1

【混合】		前	後	反
F	金振秀	6	0	0
F	孫禎俊	0	2	0
F	李性求	3	2	1
C	廉殷鉉	2	6	1
G	牧山	0	4	0
G	張利鎭	4	4	0
G	李惠澤	0	8	0
G	宋基宇	0	4	1
		15	30	3

早法野球紛糾惹起

【東京電話同盟】 東京大學리ー그 法政對早大第二回戰은 六日午後二時三十六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法政先攻으로開始 延長十一回에 드러가 結局三A對二로早大勝、이날日沒로因하야 試合不能을法政側이 말하엿스나 審判이듯지안코 續行하야 法政이不利하얏다는 理由로紛糾를 이르켯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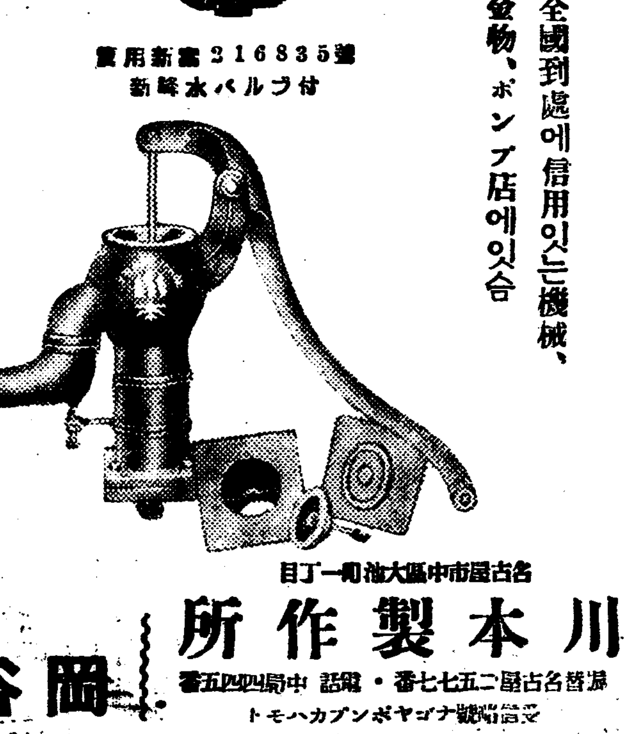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計
法政	0	0	0	0	0	0	2	0	0	0	0	2
早大	1	0	0	0	1	0	0	0	0	0	1	3A

丸善テントン商會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〇八

速히낫는 淋疾藥
特製 루ー베리
골음, 압흠 꼿곳침
藥價 二円、三円、五円、十円
大阪市南久太郞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一六八〇番
全國到ル處ノ藥店ニアリ

レコード 蓄音器 樂器
カタログ進呈
卸問屋
菊谷商店
名古屋市西區伏見町三

辭典十冊 合本 タッタの一圓
分冊は各十五錢
殘本處分大投賣斷行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景品 無代進呈 模範日記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發賣元 現代出版社


川本式ポンプ
TRADE MARK
實用新案216835號 新案水バルブ付
好評! 滿天下의「ポンプ」界를 斷然「리ー드」한다
全國到處에信用잇는機械、金物、ポンプ店에잇슴
注意!
今般特許局의査定에依하야(登錄商標第二六三一九九號) 以來當所製品에는全部川本式이라고明記하엿습니다
眞正한川本式ポンプ는 印外에는업습니다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川本製作所
振替名古屋二五七七番・電話中局四四五番
特約店 岡谷銅物部

ミシン界王プロトス
品質堅•優美極

東京ローラス會社
全朝鮮總代理店
大昌ミシン商會
全北裡里
電話278番
振替京城24638番
代理店募集 一郡一個所
希望者速速來談

總督府認可
京城金弘琯內科醫院
內科チストマ 토질 十二指腸虫 채독 科專門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

瑞西特製 金融品大亂賣
十五年保險付
服部時計商會

란란팬은
ラランポマード
포마ー드
모도개고윤다

無緣墳墓로看做 十一日부터改葬

—發掘期中이라도 申請을하면조타—

梨泰院墓地最後清掃作業

경성부에서는 소화십일년도에 리태원묘지(梨泰院墓地)의 유연(有緣) 무연(無緣)의 조사를 하야 금번도초순부터 유연분묘 연고자들로 하여금 개장(改葬)을 시켜왓는데 오는 십일로써 관할룡산경찰서(龍山署)로부터 고시과한만료개장(告示期限滿了改葬)의 허가를 어덧슴으로 십일일로부터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경성부에서 개장에착수하기로 되엿다한다 그러나개장중일지라도 연고자가 나서면 보상금(補償金)을 주어서 개장을 시킬터이라한다

九月中 讀書者 四萬六千餘名

맑은 가을철은 글읽기에 적당한 시절로 옛날부터 등화를 가까히하라는 말도잇다 경성부립도서관에 지난 구월한달동안에 입관한 도서열람인원수는총계사만륙천여백구십구명으로 매우 번창하엿다 열람인은 학생이 제일만하서 이만여천오백오십팔명이며 그다음은 무직자구천구백사십륙명 세째로는 아동들로 어천구백구명이엿다

府民病院外來患者 九月中二萬餘

利用者가漸次激增

지난 구월한달동안에 부민병원(府民病院)에서 취급한 외래환자(外來患者)는 합계 이만일천오백구십이명이엿는데 그가운데서 조선사람은 일만오천사백십삼명이며 일본내지인은 륙천일백오십일명이고 외국인은이십팔명이엇다 유료(有料)환자는조선사람은 일만이백사십팔명 일본내지인은 오천일백륙십오명이고 무료환자는 조선사람은 오천일백륙십오명 일본내지인은일백사십이명이엿다 외래환자의총수를 작년구월에 비교하면 일만 일백오십구명이나 더만타부민병원을 리용하는 수효가 점점 만하짐을 알수잇다

社會教化講演會

경기도교화단체 련합회와 경성교화단체 련합회주최와 경성부의 후원으로 팔일오후 일곱시반에 부민관 중강당에서 사회교화강연회를 개최할터인데강사는 동양대학(東洋大學)교수고도평삼랑(高島平三郎)씨며 입장은무료라한다

基靑學生失踪

시내 안국정(安國町)일백사십오번지 전원준(田元俊)의집에 하숙하고잇는 중앙기청(中央基靑) 학생 문회준(文會俊)(一七)은 제복제모도잡입 오후아홉시반쯤되여 집을나간채로 드러오지 안는다는데 그는 자살할 우려가잇다고하야 시내각서에서 수사중이다

水道施工“써비쓰” 簡易修繕은無料로!

從來의高騰한工事費도緩和

京城府에서實施

경성부에서는 수도대는 공사비가 공사재료비와 및 품삯등의 변동때문에 왕왕 시가보담 비싸게먹는 폐단이잇서 일반수도쓰는 사람들의 불평이 적지 안흔사실에 비추어 그개정할필요를 느끼고잇든중 마침내 공사비를 내려서 될수잇는대로공사청구하는 사람들의 부담을헐하게 하기로결정하엿다 따라서 수도를 고치는것 따위는 가장 헐한 갑스로 또는 빠르게 쓰는 사람들의 편의를 돌보기로 하여 수선 공사비를 내리는 한편 간단한 수선중은 이것을 그저 수응해서이달부터 실행하기로 되엿다 종래 수도대는 공사비의권본이되는 표준단가(單價)는 그것이 맨드러진지 허다한 세월이 지나간것이니만치 불합리하고또 무리한 폐단이 잇기때문에 이것을 단연코 개정하게 된것인데 이론부터 수도쓰는 사람들에게적지안흔 도움이 될것이라 하여 크게 긔대된다고한다

뉴쓰放送에도 特殊事情考慮

일본내지뉴쓰중계방송에관하여는 지난칠월체신국에서 실시코저 결정하엿스나 실행하기전에 경무당국과의 협의가되지못하야 실행하지못하엿는데 체신국과 방송국에서는 어대까지이를 실시하려고 경무당국을 설복식히기에 노력중이다 그리고 오는팔일부터 경성에서 열리기로된 전국방송사업연락회의에서도 특히조선에관한사항이 의제까지되야 조선의특수사정에 저촉되는 방송은 일본내지에서도 방송을 고려할것을 원측으로하야

一、AK의방송(뉴쓰편송)에는 이정을 충분히고려할

一、조선에한하야 저축되는사항에관하여는 량자의 련락을긴밀히할것등 만일을 염려하야 중계절단가시를한다든가 또는 이가튼 문제에관한 구체적협의가잇슬것으로 예상된다 이리하야 다시경무당국과 다시 협의하게될터인데 전번일도잇고 또총독 총감 경무국장등 이전부갈린만큼 이문제에대하야 어떠한재단이 내릴는지자못주목된다

火災百十六件!

一月以來로九個月間統計

本格的警戒는今後로

구월중 시내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네건이고 그손해액은사천삼백 팔십오원이다 이것을작년구월에 비교하여보면 건수에 잇서서는 절반이 감소되엿스나 손해액수는 오백팔십륙원이 증가되엿다 그리고 구월말일 까지의 화재건수는 일백십륙건인데 작년동기에비하면 삼십오건 삼십이만삼천 삼백사십구원이나 주럿다 이와가티 발생건수가 주럿다는것은 일반시민이 불에대하야 만히 조심하고잇는것을 보이는것으로 아프로치위를 두고본겨적으로 불조심을 할시기로 당해왓슴으로 불경계는 이제부터라고한다

一日賣上高 卅六萬餘圓

仁川商品見本市서

【仁川】루차보도한바의 인천상공견본시는 지난오일 인천공회당에서 개최하엿든바 남북각지로부터 참가자가 쇄도하야 문자그대로의 공전의 대성황틀일우웟다는데 오일하로의 매상고가 삼십륙만 일천백오십삼원삼십일전에 달한다 이를 또한전년도견본시에비하면 약십오만원의증가를 보이엿다고한다

常任委員增員

府議員增員과함께

경성부에서는 부회의원도 늘고 삼부제도도 실시된 이번 긔회를 타서 부회(府會)및 각부회(部會)의 회의규측을 개정하고저 오일 오후 두시부터 부청사총의원회실에서 회의규측개정안 기초위원회를 개최하엿다 여러가지로 협의를 한결과

一、종래에는 각기 의석(議席)에서 발언하엿스나 이것을 폐지하고 연단을 설치하야 발언할 때에는 일일히 등단할일

二、부회 및 각부회상임위원(常任委員)을 증원할것

으로하고 근간에 본회의에 자문하야 결정할터이라한다

啓明學院 秋季運動會盛況

【永登浦】광주군 언주면 역삼리(廣州郡彦州面驛三里)에 소재를둔 계명학원(啓明學院)은 원아팔십여명을가진 초등교육긔관인 순무산아동 양성소로서 자력이업서 공부못하는 아동과농촌의 계몽운동을 아울러 나즈로 밤으로 나제는 원아 팔십명에게 밤에는 농촌남녀 문맹자 백여명식 모아가지고 업지못할 교육긔관으로 만흔공헌을 끼치고 잇든터인데 원래 경제에 부다기여 창립이래 한흥파란을 겪게되엿섯든데 와야 박영섬(朴英燮)씨 후원회장 김정우(金正瑀) 유지 임봉수(林奉守) 송병철(宋炳哲)의 제씨의헌신적 노력과 현재 교원되는 유홍순(劉弘俊)(二一)씨의 뜻을다한 노력으로 다시보한원에는 갱생의 비춤보게되자 금번에도 지난일일체육대회를리용하야가을하루를 아동에 체육장려로 지낼가하얏섯는데 유지황시청(黃始淸)씨의 특지를필두로 각계인사로부터오십여원의 의연을보게되엿스며후원회의원조와 청년단 소년단의 총원하에서 추기운동회를 대성황리에 마치게 되엿다하며 아프로 동학원에 적극적 원조를 거듭하야 장차 사립학교운동까지라도 하기로 일반 유지와부형의갑격에서 넘치는 원성을보게되엿다한다

고마운이現狀!

傳染病의發生이激減

昨年同期에比하면半數도不足

九月中發生二百三十五名

적리(赤痢)는 점점 물러가고 장질부사도 고개를 들다가 그만수겨버렷다 구월한달동안에경성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자총수는 이백삼십오명이엿는데 팔월에 비하면사십칠명이 줄어젓다 특별히 만히 퍼지고잇든 적리병도 발생수는 일백두명으로팔월에 비하면 팔십사명이나 적어젓다 장질부사는 류행긔이엿지마는 겨우 칠십네명으로 팔월에 비하면 네명이 더햇다 작년에 비하면 작년구월에는 적리환자발생수가 일백사십사명 장질부사환자가 삼백삼십명데 금년구월에는 전긔와가트므로 적리환자는 마흔두명 장질부사환자는 이백이십구명이 적게 발생한 세음이다

商工業者丹楓노리大會

場所 金剛山、時日十月十七日十八日(同十月十六日午後十一時京城、出發 十九日午前七時二十分歸着)

會費 十圓 人員 百人(男子에限) 申請期 十月十二日

主催 朝鮮日報社

“人形의집”나오니 간곳마다誘拐魔

【江西】『인형의집』인 시집살출하야 좀더 사람다운 생활을 해볼려다가 그만유괴망에 걸려 우는부녀! 강원도 원주군부론면 흥호리사는정호진(丁好珍)(二〇)이라는 소부는 경성하왕십리정(京城下往十里町) 강모(姜某)(二三)의 안해엿든바 시어머니 리씨(李氏)는 자기의과부된것을 며누리의 박복한탓이라 트집잡어 평소에 학대가심하든중 지난이월경부터는 남편조차 마음이돌변하야 일체돌보지안홈으로 그대로 인형의생활을 할수업는 호진은 할수업시 자기친가인『흥호리』로 도라가겟다는 결심을 가지고 지난달 이십사일에 전기남면의집을 탈출하엿든것인데 수중에 돈한푼업는그는 가두에 방황케되자 우연히 어느모르는 사나이의 친절함에유혹되여 서내어떠른관으로 끌려가 몸갑만치고 또아튼날 거리에방황케되엿든바 그의시가친척된다는 광주군돌마면정자리이모(二七)라는사나이를맛나 고향까지다려다준다는 감언리설에 다시유혹되여 광주군고등리(高登里)란 동리까지 왓섯든바 의외에도그자는 그동리 이민중(李敏忠)의 주점에갓금하야노코 우슴팔기를 강요하므로 호진은 야반도주로 그마굴을빠저나와 동면경찰에 보호를바더 본가로 도라갓다한다

本社參觀(六日)

▲黃海道海州懿貞女子普通學校生徒 四十五名 盧快敏氏引率下

▲安岳安新普通學校生徒六十名校長丁南淵 敎員林恒蘇兩氏引率下

▲載寧明新學校生徒五十六名敎員黃九城氏引率下

▲佛敎講院生二十八人 金龍男氏引率下

▲三和公普校生三十五名 李致榮氏引率下

▲安城公立普通學校生二百三十名同校長旗智作之助氏引率下社見學

雙虹舞【7】

方仁根 作
金奎澤 畫

虫先生(七)

온명은 방구석을 치우다가 뱀을 본것이다。너무도 놀래고 맥이 풀려 어러나려고하니 다리가 시드를해서 이러날수가 업섯다。그래도 그무서운 뱀을 어서 피하려고 벌떡이러나서 나오려고하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엇다。은명은 두번재 다시 깜작놀래이엇다。

『왜 이러케 놀래십니까』하는것은 광훈이엇다。은명은 광훈이 오기전에 얼른 방을 치우고 나오려고한것이다。나중에야 광훈이 자기가 방을 치운것을 알어도 관계치안코 오히려 아는것이 조켓지마는 이러케 맛다드리니 한어시 부끄러웟다。그래서 엉겁결에

『방에 뱀이 잇서요』하고 말을 토하엿다。

『네? 뱀이 방에들어왓서요?』하고 광훈은 방으로 뛰여들어와서

『어디요? 어디잇서요?』하고 물엇다。은명은

『저 이불싼궤짝구석이에요』하고 뒷거름을 처서 보지아니하려고 하엿다。광훈은 그구석을 드려다보더니

『하하하 이거말이요』하고 병에담은 뱀을 집어서 번적들며

『난 뱀이정말 들어 왓다구요 이거야 뭐 무서워요』하엿다。은명은 두손으로 얼골을 가리우고

『아이 저리치서요 무서워요』하고 소리첫다。

『무섭긴 뭐 무서워요 죽은것을 주정에 담거서 병마개를꽉 햇는데요』

은명은 그제서야 얼굴에가리운손을 나리며

『죽은거에요 주정에담근거에요 저는 퍽살아서 꿈틀거리는걸로보앗서요ー그래도 징그러워요』하고 은명은 안심하면서도 얼굴은 여전히 찡그리엇다。

『그럼 밧게내다두엇다가 래일 학교로가저가지요』하고 광훈은 그것을 마루밋헤 너코 들어왓다。은명은 광훈이들어온뒤에나 갈가말가 엉거주춤하고 섯스니 말하여 못익이는체하고안즈며

『거기 안즈시지요』하고 광훈

『방도 쓸고 빨래할것이 업나해서 들어왓서요』하고 은명은 고개를 숙이고말하엿다。

『고맙습니다 뭐 괜찬습니다』하고 광훈은 황공해서 겨우말하엿다。

『어머니 방을쓸면 잘못하니께요 제가집에잇스니 할일도업고 그러닛이나 할까하구요 그리고 저ー빨래할것도 열러마시고 내주서요』

『고맙습니다 방을너무 지저분하게 늘어노아서 아주 망신을 햇습니다』하고 광훈은 부끄러운듯말하고웃으니 은명도 붉어진 얼골로 흘깃 광훈을 처다보고는 웃으며 다시 고개를 숙이엇다。

『참말 방안이 깨끗해젓습니다 아니 저ー꼿이벌서 되엿습니까』하고 광훈은 자기책상우에 화병에꼬친꼿을 보고 말하엿다。그것은 은명이갓다가 꼬친것이엇다。

『네ー저 복사꼿은 꺽거다가터ㄷ방에 며칠두엇더니 저러케 피엿서요』

『아ー벌서봄이 되엇습니다』

『그리구 저진달래는 저이집 뒤울안담밋헤 잇는것이 여기서는 제일 먼저 피답니다。아주 거기가 양지바른데가되어서 그런가봐요』

『그럼요 산에는 진달래가 아직 눈속에서 겨우싹트려고 애쓰는판인데요』

그들은 서로 한참이나 그꼿을 바라보앗다。복사꼿과 진달래가 서로 꼭 부터안고 봄을 속삭이는거가태다。그것을 바라보는 광훈과 은명의 가슴에도 봄과가튼 정의따뜻한 기운이돌아 꼿과가튼 사랑이 피려는거가태다。사람에게 이 사랑의첫봄이 차저올때처럼 황홀한때는 업슬것이다。광훈과 은명은 오직 황홀히 하엿다。그들의 얼굴은과연 꼿이 피는것처럼 사랑의열기로 붉어젓다。공연히 기쁘고도 부끄럽고도 재미잇섯다。그들은 잠간 침묵하엿다。광훈은 이 괴로운 침묵에서 버서나려는듯이 벌떡이러나 벽에 꼬친 나뷔 한머리를 떼여가지고 꼿우에 언즈며

『꼿이잇스니 나뷔도 잇서야지요』하고 언저노흐니 죽은나뷔라 툭떨어젓다。그바람에 꼿도 한송이 떨어젓다。

『못생긴 나뷔가트니』하고 광훈은 또 올려노흐면 떼어시를랭 떨어지고하엿다。그들은 우섯다。이번에는 은명이 달려들어 가만히 조심스럽게하여 나뷔를 꼿우에 언저 노핫다。

笑ひの最高陣

クラブ爆笑大會 (구라부)

愈々迫る

★全半島의愛用者各位께再次捧呈함★

보라! 이豪華巨篇

綜合ホルモン含有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 미신크림)

愛用者御招待

時 十月七日八日(晝夜二回 午後一時六時)

所 京城府 府民館

十月九日(夜一回 午後六時) 仁川府 瓢館

プログラム

一、プロローグ 爆笑大會代表 水ノ江桂 永子

二、漫才 錦小路友 昭

三、萬歲 桂家米丸 若柳小勝

四、奇術と曲藝 東洋チャップリン

五、漫藝 春風亭小柳 桂、木東鶯

六、舞踊(浦島) 昭和メリー 千千惠子 千代

七、歌謠名曲集 花菱家松子 吳成鍊

八、漫才ショウ 昭和コシロー 昭和千代 昭和千惠子 昭和メリー

九、音曲舞踊 若柳小勝 春風亭小柳 花菱家松子

十、國際漫才 ミスユキ子 アール・ポンペイ

十一、爆笑オリンピック 秘藝競演大會 全員出演

★無料御招待

구라부美身크림極大瓶一個(大瓶은二個特瓶大이면三個)以上買上하시는분께即時빠짐이업시구라부爆笑大會招待券을進呈합니다。

產業

滿洲、北中으로 고무靴輸出激增
九月末까지에三百五十餘萬足
比前年倍增의大發展

滿洲北中에의 朝鮮產品輸出中 今年에잇서 躍進的發展을 示한것은 고무底布靴로 九月末까지의 輸出額은

數量 三、五二三、五七五足
金額 一、四九〇、一二〇圓

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前年은 百五十七萬足、七十二萬一千圓으로보다 前年倍增以上을 示하야 着實한 發展을 示하고잇다 그런데 此中 日本內地品百八十萬足 九十八萬五千圓 朝鮮產品百七十一萬足、五十萬四千圓으로 朝鮮產品이 前年에比較하야 激增傾向에잇다

長湍名產大豆出廻 新品一石에十六圓

【長湍】長湍郡名產品인 長湍大豆는 長期降雨로 成育不振하야 前年에比하야 二割可量減收되리라고하는데 新品大豆는 時期를 따라 去四日에 出廻되여 一石十六圓에 賣買되엇다는바 現品은 全部仁川으로 搬送된다고한다

畜牛增殖에 低資를融通
今年부터計畫實施

財務局에서는 일즉이 農林局과 提携하고 朝鮮畜牛增殖에對하야 金融組合의 各村落組合員一戶에 對하야 一頭式의 普及增殖計畫을 樹立하얏든바 드듸어 今年度부터 畜牛低資를 活用하야 一大擴充에 入하기로되어 近近各道知事에 畜牛增殖의 新通牒을 發하기로되엇다

現在 全朝鮮金融組合의 村落組合員 百三十萬人中 畜牛를 有하는者는 五十九萬人으로 四割五分에 不過하다 그 擴充對策으로 購牛資金의 低利貸付(擔保六分七厘、保證七分七厘)를 行하야 全組合員에今後五個年에 普及식힐 意이다 이金融組合中心의 計畫은 直接으로 端的效果를 擧할수잇는 것이니만치 朝鮮의 畜牛增殖上 注目된다고한다

琺瑯鐵器輸出 百萬圓臺를突破
所向國卅餘個國에到達

琺瑯鐵器의 海外輸出은 昭和八年以來의 進出로 昨十年度에잇서 輸出額이 百萬圓에 切迫하고 輸出所向國三十餘個國에 達하야 躍進的發展으로 注目되고잇든바 繼續하야 今年에入하야서도 琺瑯鐵器의 進出은 놀만한바가 잇서서 月額十萬圓平均의 輸出을 行하야 九月末로 輸出百萬圓을 突破하는 百五萬七千五百圓에到達하야 前年에比較하면 實로三十九萬三千圓約四割弱이 激增되엇다 年度內에는 적어도三、四十萬圓이 더增加되리라고보이고잇다

大田地方에稻熱病 그防除策조차漠然

【大田】二重三重의 洪水와 暴風雨로 農作物이 全滅狀態인大田地方에 稻熱病까지 蔓延되여 甲川과 錦江沿岸은 浸水로 被害가 莫大하고 山間地帶에散在한 農作物도 暴風雨로 全滅狀態에 이르러 若干의 殘在한 農作物에 稻熱病까지 蔓延하야 地主로는 小作料를 徵收할 道理가 無함은 勿論이오 貧窮에 싸인 小作人으로는 주린창자를 부여주고 半年間이나 血汗을뿌리며 눈코뜰사이가업시 作農한 것이 多小間이라도食糧을 補充할 道理가 無하야 一般은 極度로 憂慮中인데 尤甚한곳으로는大德郡北面인바 官民一同은 其防除策을 講究中이나 別無妙策이라하며 北面農民一般은 다만하늘만 바라보고 잇다한다

【開城】開城의 名產 白蔘製造는 九月中旬부터 開始하야 지금 한창 繁忙期인데 하로 萬餘名의 男女工을 收容하야 生活戰線은 展開되고잇다。(寫眞은 水蔘을 白蔘하는 女工들)

各國通貨現狀(二)

◀【金本位의崩壞와世界通貨混亂】에서續載▼

체코 코-쿠로-네 一九二九年十一月에 成立되기까지는 쇄오-스트리 항가리 쿠로-네에依하얏스나 右法律로 쿠로-네는 純金四四・五八미리그람으로 安定되엇다 其後 一九三一年末에 他中歐諸國에倣하야 爲替管理를 行하고 如何한對外支拂도 一個月一人에 一千쿠로-네以內로制限하얏다 米國平價切下에伴하야 弗及磅이 低落되고 輸出不振에陷하얏슴으로 一九三四年二月十七日 平價의切下를斷行하얏다 一쿠로-네의金純分을 純金四四・五八미리그람에서 三七・一五미리그람으로 卽一六・六六%의切下이다。

白耳義 一九二六年十月廿五日勅令으로 法을 品位十分九의 金四六・九一미리그람(以前은三三・三六八미리그람)으로定하고 同時에 벨가(五에相等하고從하야 品位十分九의 金三三二・四五七미리그람)를 設하야 外國爲替取引의基準으로하얏다 卽法貨는 約五分一로 切下되어新法貨와 大略가튼 벨가가 創設되리이다 그러나一九三五年三月三十日에 至하야 財政經濟難으로 金本位를 停止하야 爲替維持에잇서 벨가平價를 二割五分乃至 三割가량 切下하는 法案을 通過、翌三十一日 벨가는 二割八分切下하고 三月卅一日이를 恒久的인것으로하얏다

룩센부룩 이大公國은白耳義의衛星과 如한것으로 通貨制度도白耳義와가튼 그리고 白耳義의銀行券이 法貨로流通하고잇섯다。 그러나 白耳義의 平價切下에伴하야 一九三五年四月一日의 法律로 白耳義法貨 一二五對 룩센부룩法貨一의 新比率이 設定되고 이比率로 白耳義法貨는 룩센부룩國內에 受入하게 되엇다 이는 룩센부룩法貨가金보다 一割가량切下되엇슴을 意味한다。

佛蘭西 는一九二八年六月廿五日의 法律로 이미 한번平價切下를 行하얏다 卽 그時 法貨의 金純分은品位十分九의 金六五、五미리그람 卽 約五分一로 切下되엇다 그後法貨는 가장 安定된 通貨로 世界의 三分一의 金을 自國에 集中하야 好景氣를 謳歌하고잇섯스나 英國、伊太利의 金本位離脫乃至 平價切下로 地位가反對로되어 드듸어 이번再次의 平價切下率은 品位十分九의 金四九乃至四三미리그람間 卽 二割五分乃至三割五分間의 切下가 豫定되엇다 그러나 情勢에應하야 決定하게될것이다

瑞西 는 佛蘭西와의 通貨關係를 維持하고잇든 金本位國이다 그러나그도 昨年六月廿二日에는 金及外國爲替의 輸出制限令을 公布하야 金의先物取引、金及外國爲替의 先物取引等을 禁하얏슴으로 그金本位도 當時부터 瞞狀으로되어잇섯다 그러데 이번 法貨에따라 平價切下를 斷行하기로되엇는바 그切下도 거이 佛蘭西의 切下率에따라 二割五分九厘四毛乃至三割四分五厘五毛의間으로 決定되엇다

和蘭 에잇서서는 佛蘭西의 平價切下와 時를갓치하야 和蘭의 國際的地位로보아 平價維持의 困難이 明白하게되엇다 和蘭은 海外에 多數의 投資를가지고 잇슴으로 이에따라 平價切下를 決定하얏다 그러고 和蘭政府는 이번의 金輸出禁止를 斷行하기로 되엇다。金輸出禁止는 和蘭이 金本位에서 離脫하는것을 防止하기 爲하야 平價切下外엔 업슬것이다 —終—

石炭鑛山爆發 危害防止의規定
鑛山警察規則에包括

石炭鑛山의 爆發危害防止에關하야서는 朝鮮에는 何等의 特殊取締法이업고 또 鑛夫의 扶助에對하야서도 何等의 法的制限이 업는데 鑛山課에서는 目下 立案中인 鑛山警察規則中에 此等의 內容도 包括식히어 朝鮮斯業의 質實、健全한 發展을 期하고잇다 日本內地에서는 鑛業關係의 此等은 鑛業警察、鑛夫扶助、石炭鑛爆發의 三部로되어잇는데 朝鮮에서는 이를 綜合할豫定이다

災地全南棉作 大減收를豫想

【光州】全南의 棉花名產地는 南海岸各郡인바 今年一、二、三次로 襲來한 暴風雨被害가 莫甚한곳도 亦是全南道南部各郡임으로 陸地棉의 被害는 더욱 極甚한바잇는데 今年收穫豫想高를 보면 二千九萬二十六萬三千百十七斤으로 前年收穫六千四百六十萬一千八百二十七斤에 比하면 三千五百三十三萬八千七百十七斤이 激減되야 五割以上의減少라하며 昨年一段步生產一百二十斤에對하야 今年에는 一段步生產六十七斤밧게 안된다한다 各郡收穫豫想은 다음과갓다 (單位斤)

郡	收穫豫想
▲木浦	[illegible]
▲光州	[illegible]
▲光山	[illegible]
▲潭陽	[illegible]
▲谷城	[illegible]
▲求禮	[illegible]
▲光陽	[illegible]
▲麗水	[illegible]
▲順天	[illegible]
▲高興	[illegible]
▲寶城	[illegible]
▲和順	[illegible]
▲長興	[illegible]
▲康津	[illegible]
▲海南	[illegible]
▲靈岩	[illegible]
▲務安	[illegible]
▲羅州	[illegible]
▲咸平	[illegible]
▲靈光	[illegible]
▲長城	[illegible]
▲莞島	[illegible]
▲珍島	[illegible]
▲濟州	[illegible]
▲計	[illegible]

郵便料金引上
封書四錢、葉書二錢等
根本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遞信省에서는明年度 通信料金 一般豫算繰入增稅 其他財政上의 諸條件을 考慮하야 郵便料金引上 一般會計繰入問題에對하야 研究中이든바 이지음 大體

一、通信料金引上에 依한增收一千五百三十餘萬圓
一、一般會計繰入金額最高五百萬圓限度

로 根本方針의 決定을 보게되엇다 그런데 通信料金引上의具體的內容으로서는

一、有封書狀及 葉書의 三錢을四錢으로 一錢五厘를 二錢으로 引上 (이로 增收一千百三十餘萬圓)
二、其他 第三種(五厘) 第四種(二錢) 第五種(一錢)을 各히 引上하고 그代身 써-비스向上을爲하야 郵送重量을 增加함 (이로 增收四百三萬餘圓)

合計 一千五百三十餘萬圓으로될터인데 此中 第三種物中 發行人 發送의 日刊新聞은 文化向上을爲하야 除外하야 引上치 안코 또 郵送重量의 增加를 行한다 그리고 一般會計에 對한 繰入에 對하야서는 他의現業官廳과의 關係를 보아 決定할터로 繰入額은 大體 五百萬圓 最高限度로하고 剩餘는 通信業擴充、從業員의 待遇改善에 充當할 方針이다 右에 對하야 前田遞信次官은 六日午前 如左히 말하다

通信事業의 普及改善의 不徹底에對하야서는 반드시 遞信當局의 努力이 不足한것이 아니고 그根本原因은 過重한 納付金制度와 政府의 公債政策으로 事業公債의 發行에 制限을 付한데 依하는것이다 따라 그普及改善을期待함에는 納付金制度에 關하야 根本的再檢討를 할必要가잇다고 생각한다 明年度豫算編成에 當하야서는 一般增稅가 必要한때 郵便料金의 引上은 不得已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데 郵便料金을 引上하는 一方에잇서서 從業員의 待遇改善과 事業써-비스向上을 考慮하지안코는 아니될것은 勿論으로 이를하고도 餘裕가잇스면 一般的措置로 一般會計에對한 繰金繰入도 또한 不得已할것이다

圖們에팔프工場

【淸津】建設途中에잇는 圖們市에는 東洋人經營의 팔프工場이 設置된다는데 近近新京에서 入札을 한다고한다

長湍畜牛大市盛況

【長湍】長湍郡畜産組合主催인 長湍畜牛大市는 去二十八日 長湍邑內牛市場에서 大盛況裡에 終了하얏는데 大市期間中에 賣買된 畜牛는 實로 一千七百六十二頭에 達하야 例年에比하야 好成績이라는바 當業者界의 擴張에 ... 知도하다고한다

慶南秋繭減收

【釜山】慶南道內의 秋蠶의 第一回豫想이 掃立二萬四千三百六十四枚 收繭一萬八千石이엇스나 지난번의 大風水害로 桑田의流失 埋沒及 桑葉의 多大的被害를 입어 二十四日 道農務課의調查에依하면 掃立一萬二千一百八十枚 收繭이 一萬百六十五石으로 第一回豫想보다 約四割五分의 減收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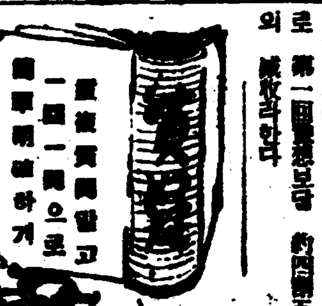


圖 小牛이 ... 給코저하오니 京仁間에 ... 下敎하여주시오 (吳宙一讀者)

答 京城府南大門市場 三和商店 同太平通二丁目 二川商會에서 取扱합니다

問 京城市內의 漢藥乾材局을 下敎하시옵소서 (一讀者)

答 京城府鍾路貫鐵町 天一藥房 同黃金町二丁目 三星堂藥房等이잇습니다

日用商品市況

漢藥 (京城五日現在)

品名	一等	品名	二等
開城人蔘(一斤)	[illegible]		[illegible]
天麻	[illegible]	赤箭	[illegible]
白朮	[illegible]	蒼朮	[illegible]
狗脊	[illegible]	巴戟大	[illegible]
遠志	[illegible]	仙茅	[illegible]
玄參	[illegible]	地楡	[illegible]
丹參	[illegible]	紫草	[illegible]
白芨	[illegible]	黃連	[illegible]
胡黃連	[illegible]	黃芩	[illegible]
莪朮	[illegible]	柴胡	[illegible]
前胡	[illegible]	防風	[illegible]
羌活	[illegible]	獨活	[illegible]
升麻	[illegible]	苦參	[illegible]
白鮮皮	[illegible]	延胡	[illegible]
貝母	[illegible]	龍膽	[illegible]
細辛	[illegible]	川芎(土)	[illegible]
白芷(唐)	[illegible]	白芍藥	[illegible]
良薑	[illegible]	白豆蔻	[illegible]
砂仁	[illegible]	益智仁	[illegible]
肉豆久	[illegible]	破古紙	[illegible]
鬱金	[illegible]	莪朮	[illegible]
香附	[illegible]	藿香	[illegible]
澤蘭	[illegible]	香薷	[illegible]
荊芥	[illegible]	薄荷	[illegible]
紫蘇葉	[illegible]	蘇子	[illegible]
茵蔯	[illegible]	益母草	[illegible]
胡芦巴	[illegible]	蒼耳子	[illegible]
麻黃	[illegible]	木賊	[illegible]
燈草	[illegible]	生地黃	[illegible]
牛膝	[illegible]	白葵花	[illegible]
決明子	[illegible]	車前子	[illegible]
連翹	[illegible]	萹蓄	[illegible]
大黃	[illegible]	附子	[illegible]
大戟	[illegible]	白附子	[illegible]
南星	[illegible]	半夏	[illegible]
生東絲子	[illegible]	沙參	[illegible]
白扁豆	[illegible]	五味子	[illegible]
使君子	[illegible]	瓜蔞仁	[illegible]
天花粉	[illegible]	葛根	[illegible]
天門冬	[illegible]	白何首烏	[illegible]
通草	[illegible]	木通	[illegible]
錦山人蔘(一匣)	[illegible]		[illegible]

品名	價格
竹茹	[illegible]
乾薑(土)	[illegible]
五倍子	[illegible]
朱砂	[illegible]
石膏	[illegible]
甘草	[illegible]
竹瀝	[illegible]
上白茯苓	[illegible]
白茯苓	[illegible]
牧丹皮(土)	[illegible]
五加皮	[illegible]
金櫻子	[illegible]
梔子	[illegible]
枳實	[illegible]
杜沖	[illegible]
黃柏	[illegible]
丁香	[illegible]

乳用山羊과飼養法 ③
李相泰

來歷

山羊은 有史以前부터 잇슨것갓다。印度에서는 約三千年前에 山羊乳를 飮用하엿다한다。그러나 明白한 文獻이업다。『리리메-겔』及『롬란스론』兩氏에 依하면 瑞西湖邊 石器時代의 住民은 山羊을만히 飼養하야 乳肉、毛皮等을 利用하엿고 山羊이 强健하야 高燥한 荒蕪地에도 잘生育함으로 地中海沿岸의 住民이 北方에 移住할時에 瑞西湖邊에다리고온듯하다고한다 古代埃及에서는 山羊皮로 紙를 만드럿다하며 第二世王가 가우도사(紀元前一七〇年에即位三九年間王政을行함)은『山羊맨대스』와 牡牛『아바스』를 神으로崇拜하엿다。即一雄의 山羊이 死하면 一郡이와全部喪에 服하엿다。猶太人은 山羊을 極히 尊重히녀이고 皇族長官의 代名詞를 雄山羊이라하엿다。上述한바와가티 各學者의 說과 埃及希臘羅馬等의 神話와 舊約聖書의『民은 羊과가티迷하고云云』한 것이 猶太人이에호바에게 山羊을 犧牲하야 其乳를 飮用식힌 것等을 綜合하면 山羊은 太古時代에 家畜化한것을알수잇다。그러면 家畜化한 山羊의 祖先은 무엇인가하면 아직 明白치 안코나 大略 波斯地方產野生山羊인듯하다。即 現今의 山羊은 小亞細亞의 波斯베르리스탄地方의 Capra aegagrus(角四尺以上에達하는野生山羊)와印度西北部(아프가니스탄 東北部) 產의 野生種 Capra Falconeri(螺旋形으로屈曲한角과 長髯를有함)交雜種을 有史以前에 東洋民族이 飼養하엿스며 此民族의 西漸時에 地中海沿岸地方에 移入되엇다고 볼수잇다。此民族의 西方移住時에 瑞西地方에 同伴하야 氣候風土가 適合한 瑞西湖邊地方에서 數千年間 人爲淘汰 自然淘汰 雌雄淘汰等에 依하야『자-넨種』『토겐부르크種』等이 出現한 듯하며 東洋에서 淘汰되여 支那種 蒙古種等이 되듯하다。

山羊의分類

山羊은 哺乳動物—反芻—偶蹄—洞角—羊科—山羊族에 屬하며 羊과 近似하다。

學名 Copra hircus L
英名 Goat
獨名 Ziege
佛名 Mouton
朝鮮、日本內地、中國、山羊

山羊의種類

◀乳用種

一、자-넨 本種은 瑞西베른縣자-넨地方의 原產이며 瑞西全般에 分布되여잇다。特히『아펜셀』과『베른』地方에서 만히 飼養하고잇다。頭顎部長 耳는立、體形長方形、後軀는 廣大、毛色白、顎下에一雙의肉髥가有하며大略無角이다。乳房의 發達이良好하고 體重은 牡約一八貫 牝約一三貫、體高는 二一—三尺이고 乳는 他種에比하야 多少稀薄하나 泌乳量이 多하고 脂肪量은 四、五—六%이며 約一升二合—二升三合의 泌乳를하고 年約三—五石을 泌乳하다。泌乳期間은 約八—九個月이다。本種은 乳用山羊中 泌乳量이 多하고 外貌가 아름답고 身丈이 大한 點에잇서서 第一位를占하나 體質이 耐寒力에는 强大하나 耐暑耐熱力이 弱하다。그러나 朝鮮에서는 有望하다。

二、토겐부르크 本種은 瑞西센트가-렌州의『토겐부르크』地方의 原產、同型이나 褐色毛、體形이 多少小、體質은 多少强하며 泌乳量도 多少적다。四肢의 下部가 白色이고 頭顎에 一條의 白帶가 잇는것이 特徵이다。北米加奈陀等地에서 만히飼養하고잇다。朝鮮에서는 자-넨種다음에간다。

三、누비아 亞弗利加의 누비아地方의 原產이며 南北亞弗利加各地에서 飼養하고 잇스나 朝鮮에는 有望치 아니하다。

四、말타 地中海의 英領말타島의 原產 寒冷地에는 不適、有望한 種은 아니다。

五、쇼빌소랄드 獨逸의 쇼빌소랄드 地方의 原產 無角褐色『토겐부르크』種에 近似하며 乳量은 一個年約三石 體質强 放牧에 適當하나 別로 有望치안타。

◀肉用種

支那種 蒙古種 中國蒙古各地에서 產하는데 性質頑强、粗食에耐하며 毛、皮革、乳肉을 利用하고 毛色은 大概黑色이나 灰色도잇다。朝鮮、臺灣、日本內地에잇는 山羊은 本種과 同一의 系統이다。

◀毛用種

一、앙고라 小亞細亞黑海의 南方海拔六〇〇—一、二〇〇米突의 高原地方『앙고라』의原產 體重牡約一三—一六貫牝八—一一貫 絹絲光澤을가진白色長毛를 가젓다。毛長은 約六寸—八寸으로 一個年間의 剪毛量은 二五〇—四〇〇匁이고 高貴한織物、紫甲等에 供한다。體質은 耐濕力이적다。南米、北米、濠洲가튼乾燥地方에 適當하다。四—五月에 剪毛한다。

二、카시미아 英領印度의 北境『히마라야』山脈中의『카시미아』地方의原產、英領南阿이輸入하야改良하엿스나原產地것에 比할수업서서失敗하엿다。毛는 絹絲光澤을가젓고 一年間毛量은 約三〇—三五匁에서 前種에比하야 形體가小、毛色은白이만코 或褐、黑이잇다。『콕도리』一個에 約十匁分의 羊毛가 必要하며 剪毛는四—五月中에한다。

以上 數種을列擧하엿스나 此以外에도 多하다。그러나 別로 有名하지안흠으로 略한다。山羊中에도 乳用種이 重要하며、乳用種中에서도『자-넨』種과『토겐부르크』種이 第一有望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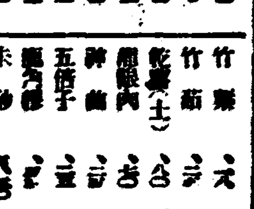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四九五	金銀鑛	平南价川郡中南面 中西面	九月十日	价川郡价川面 徐炳律 代表者 同 途炳楚 同 孫世昌 同 劉鎭佰 同 尹願奎
一三四九六	金銀鑛	江原橫城郡書院面	九月十日	京城府惠化町 李禎爵
一三四九七	金銀鑛	忠南保寧郡嵋山面	九月十日	瑞山郡八峰面 金仁瑞 代表者 保寧郡川北面 韓炳燮 同 兪炳瓏
一三四九八	金銀鑛	平北熙川郡東倉面	九月十一日	京城府都染町 具滋興
一三四九九	金銀鑛	江原三陟郡上長面	九月十一日	釜山府草梁町 藤原榮次郎 代表者 京城府吉野町 三宅右近 釜山府草梁町 池田淸結
一三五〇〇	砂金	全南求禮郡光義面 山洞面龍方面	同	福岡縣田川郡添田町 藏內正次
一三五〇一	金銀鑛	平北慈城郡梨坪面	同	京城府長橋町 李寧鎬
一三五〇二	金銀鑛	忠北槐山郡甘勿面 長延面	同	京城府南米倉町 安圭一 代表者 天安郡笠場面 崔洪烈
一三五〇三	石炭	全南和順郡東面寒泉面	同	木浦府南橋洞 宋文玉 代表者 同福山町 和田正三郎 同湖南町 鄭奉云
一三五〇四	金銀鑛	忠北忠州郡薪尼面 老隱面	同	忠州郡周德面 柳寅亨 代表者 槐山郡曾坪面 金鎭容 忠州郡薪尼面 金容演
一三五〇五	金銀鑛	平南寧遠郡永樂面	同	京城府壽松洞 卞東均 代表者 平壤府竹里 金能秀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六四一	黃海信川郡斗羅面 海州郡羅德面	九月十一日	大邱府榮町 岡部與三郎 代表者 岡部弘三
九〇七八	江原麟蹄郡東面	九月十一日	東京市京橋町 昭和鑛業株式會社
一一六五七	同東面臨溪面	同	同
九四三六	京畿安城郡孔德面 陽府面	九月十二日	天安郡成歡面 金[illegible] 代表者 同 崔[illegible] 同 朴[illegible]
九五七四	京畿安城郡瑞陽面	九月十二日	天安郡笠場面 川口富代松 代表者 大分縣玖珠郡 四元幸兵衛 石橋正三郎
一三一五二	京畿安城郡瑞雲面 忠南天安郡笠場面	九月十二日	久留米市 四元幸兵衛 代表者 大分縣玖珠郡 石橋正二郎
七三二〇	咸南端川郡水下面	九月十二日	咸州郡興南邑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 代表者
九四三九	咸南新興郡上元川面 下元川面 豊山郡安水面	九月十二日	京城府三坂通 山下廣吉 代表者 同南米倉町 柳光八
一〇三七九	同新興郡下元川面	同	京城府御成町 蓮田精一 代表者 東京市澁谷稷田 二宮錦一
一一八六八	同豊山郡安水面 新興郡上元川面 下元川面	同	同
一二八三〇	同新興郡下元川面	同	同
六三三九	咸北慶城郡龍戒面 慶源郡慶源面	九月十二日	慶興郡雄基邑 東洋炭業株式會社
六五四一	同慶源郡慶興面	同	同
一〇四九八	忠北忠州郡山尺面 嚴政面	九月十四日	京城府公平町 合資會社天銀鑛業社
八四三六	忠南禮山郡德山面	九月十四日	洪城郡洪北面 李完俊 代表者 同 金南俊
四五七五	咸北鏡城郡朱南面	九月十四日	京城府黃金町 會文炭鑛株式會社
六一三四	同	同	同
六四九〇	同	同	同



黃昏 (196)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전후 (八)

준식이가 주인으로 돌아오지 얼마후엿다。 동필은 성큼성큼 그의 방에 들어와서 덥퍼 문을 열어보고 아무말 업시 방안에 들어와서 한참 준식의 얼골을 노려보앗다。

준식은 동필이가 들어오는것을 보고도 역시 아무말 업시 그의 동정을 빗으로이 살피고만 잇섯다

그들은 반년남아 발목하와라 볼때 친한 사이엿드니만치 감정도 여남은 사람보다 더 기펏다。

한신년만에 만나는것가치 준식에게는 생각되엇다。 그만치 두사이는 소격햇든것이다。 그러나 이밤에 이러케 의외로 만난것은 전연 뜻하지못한 일이엇다。

흥분과 알븐(暗流)와 히망과 공포가 흐르는 실로 야릇한 순간이엇다。

싸우기 위해서 만난것인지 모되기 위해서 만난것인지 알수업는 그러한 새파란 감정에지배되는 장면이엇다。

「준식아!」

별안간동필이가 이러케 외첫다。

몹시 날카롭고무게잇는소리엿다。

그러나 준식은 까딱하지안코 꼿꼿하게 안잣슬뿐、아무말도 업다。

실로 처참한 대치엿다。

「준식아!」

또한번 묵청가튼 소리가 튀여나왓다。

「왜 대답이 업느냐?」

말의 무게와 기피를 더하는 침묵의 잠깐 사이가 지나간다

동필은 다시 이러케 외첫스나 준식은 여전히 잠자코잇다。

「너이들 용감한 전사가 줄칙한 판울 메고、너이들의 입으로 만들어논 한개의 배신자를 너희려 오는줄 알엇드니、기다려도 오지안키에、산송장이 스스로 차자왓다。말해봐라」

동필은 두주먹을 불끈 쥐고 황소와 가티 준식을 노려보앗다。아무반응도 보이지안는 준식의 태도가 몹시 미웟든 모양이다。

「비겁한 풀을 하지말고 말을 해봐라」

「……」

「침묵이 모든일을 해결해 줄 밋느냐? 성실한 사람에게 온갖 루명을 씌여노코 그들을 하면 무사할줄 아느냐? 말을 해라」、

「……」

—그래도 준식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혀를 다물어라하여 몰이 되는 그래야 내속을 다 알수잇다 하는이 준식은 아직도 침묵을 깨지안코잇는 상이엇다。

「경거망 무슨 소리나? 엇다 쓰는거냐?」

「……」

「나를……나를 경거망 필요가 대체 어데 잇느냐? 웨 말이 업느냐?」

「……」

「네 쉬파리떼를 내거다 뗏 부처노니 대체 무슨 냄새를 마트라는거냐? 또 마른거잇건 말해봐라!」

、그래도 준식은 아무 대꾸도 하지안앗다。동필이가 차저온 진의(眞意)를 아직도 다 타진(打診)해 내지못햇든것이다。그럼으로 그에게 다다를 근본레도를 아직은 어떠케 세울지결정을 잣지못하고 잇섯다。

「예들아 편당을 지어가지고약한 사람、겸업는 사람、선량한 사람、못난 사람을 초개가티따돌리는것이 너이들의 일은마여할이냐?」

「……」

「때와 경우를 생각하지 안코 함부로 술처대면 그것이 일은 바 용사냐?」

「……」

「제의견에 부화리동(附和雷同)하는 무리만 나무고 그당 사람에게는 떰허노코 검은 꼬리표를붓친다는것이 너이들의 소위 진리를 사랑하는 행동이냐? 실지야 여하튼 공론(空論)이나 수북히 싸하노면 그것이 소위 리론이냐?」

준식은 비로소 한마듸 하려고 하엿스나 또한번 그의 화를 느추엇다。동필의 말은 결코 오늘처음 듯는 리론이 아니엇다。

—이리 대면 이리되고 저리 대면 저리 되는 따위 평범한 문구엿다。그러나 그날에는 진정과 량심이 잇는것을 준식은 저것하면 그들이 내세우는—

동필은 여전히 벼지르고 선채로 준식을 내려다보다가 말을 이엇다—

「너이들 생각에 맛지안는 사람은 죄과도 월수업고 이익임도 헤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

그래 준식은 얼굴의 근육이 긴장해지며 알연히 외첫다—

「그래라 만기를 것는 사람은 우리들의 편은 아니다」